



안녕하세요. 민옥남 수녀입니다. 저는 1986년 입회하였고, 7년간 본당 사도 직을, 1996-2000년까지 가톨릭대학 종교학을 수학한 후 7년간 양성담당 소임을 하였습니다. 양성자들을 동반한 것은 가르치며 배우는 도전의 시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세례를 받은 이후 선교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하느님께서 기회를 주시어 2007년 에콰도르 선교에 자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 3월 29일 한국을 떠나 시카고 총원을 거쳐 4월1일 새벽 12:30 a.m. 과야야길에 도착 하게 되었습니다. 공항에서 베드로 카르보로 오는 길은 무척 어둡고, 오로지 자동차 불빛과 익숙한 운전자의 운전만이 중요했습니다. 이는 마치 저의 선교여정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의 삶을 예수님

께 맡기겠다는 다짐의 기도여정 되었습니다. 여행 동안 순간순간 한국에서 첫 선교를 시작하신 4분의 수녀님들을 기억 할 수 있었습니다. 한달 이상을 화물선을 타고 낯선 땅, 낯선 사람들을 찾아오시어 사랑으로 살아오신 덕에 우리가 다시 선교사로 길을 떠났구나..... 감사함과 설레임이 함께 하였습니다. 에콰도르는 원유수출과 함께 카카오, 바나나, 장미, 새우 등 1차 산업수출국 이면서도 대다수의 국민이 가난하게 살아갑니다. 주민들은 소박하며 친절하고 잘 웃고, 춤추는 것을 좋아합니다. 도착한 2주후부터 가톨릭대학교 여학원에서 스페인어를 배우고 주말에는 베드로 카르보에서 지냈습니다. 자비의 성 모병원과 크레셈(학교 인가 후 이네셈으로 이름이 바뀜)의 운영 상황을 보고, 베드로 카르보 성당과 인근 공소들을 방문하면서, 이곳에서 오랫동안 선교사로 사신 헤르베르트 신부님과 김용숙 엘리사벳 자매님에게 인수인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선교는 이론이 아니고 삶이라는 사실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는 동안 말을 못해서 오해도 생기고, 의사전달이 안되어 어려움을 겪었지만 언어를 얼마큼 잘 하는가 보다는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가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실수를 통해 이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가장 큰 체험은 2010년 전국적으로 전기가 부족하여 몇 달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병원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었기에 갑자기 단전되는 전기에 소수무책이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발전기는 프로판 가스로 작동하는 적은 용량의 발전기였고, 과부화로 자주 고장이 났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고장 난 발전기를 수리하기 위해 전기기사를 수소문하였는데 여러 곳에 같은 문제로 기사가 도착한 시간은 밤 12시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까지 있던 관리직원인 돈 후안이 보이지 않았고, 발전기를 다 고치는 동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도 잘 못하고 잠도 잘 못 자는 상황이라 예민했습니다. 당직간호사에게 잘 듣고 설명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아침이 되어출근한 돈 후안을 불러 말 없이 사라진 것에 대한 추궁을 하였습니다. 변명하는 말을 제대로 알아 듣지 못한 저는 화가 나서 하고 싶은 말을 한국말로 큰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가만히 제 말을 듣고 있던 돈 후안이 "수녀님, 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선교사로 이곳에 왔으니 스페인어를 빨리 배워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

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화가 빠져나가고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아! 내가 선교사구나. 저의 정체성이 되 살아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수녀님은 선교사 입니다" 이 말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었습니다. 일이 잘 안될 때, 답답할 때, 저희 부족함으로 좌절할 때 늘 이 말을 떠 올립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시작합니다. 마더 씨튼의 말씀처럼....





Hello Sisters! I am Sister Min Ock Nam who is working in Ecuador. I entered the community in 1986. I worked at parishes for seven years, studied religion at Catholic University from 1996 to 2000, and worked as formation director for seven years. Especially, the time I worked as formation director, gave me lots of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learning. Since I was baptized, my dream was to be a missionary, so I volunteered to go to Ecuador in 2007. Leaving Korea on March 29th, 2008, I came to Ecuador at 12:30 am on April 1st by way of Chicago. From the airport to Pedro Carbo, the road was so dark that I could see only the lights of the car. I felt, the skill of the driver was very critical. It

reminded me of my future journey as missionary. I decided to put everything in God's hands again. On my way to Pedro Carbo, I was also reminded of our first American Sisters who came to Korea. The Sisters traveled by ship for over one month, and left their home and families to serve strangers in Korea. Owing to them, I came to Ecuador to be a missionary. My heart was filled with gratitude and excitement.

Ecuador exports crude oil, cacao, bananas, roses, and shrimp to other countries; however, the people are very poor. Ecuadorians are very simple, smiling, kind, and they love to dance. After two weeks in Pedro Carbo, I went to study Spanish at the Catholic University Language Institute. While studying, I explored the clinic and INESEM School, visited the Pedro Carbo Parish and its remote churches. Ms. Kim Yong Suk and Fr. Herbert (both longtime missionaries) handed over the clinic and school to our community. This experience taught me that mission is not just a theory, but it is real life. Sometimes misunderstandings happen between the people and myself because of my poor Spanish; however, I found the most important thing is how I try my best, not how good I speak the language. And mistakes made me learn the truth. I want to share my big personal experience with you. In 2010, the electricity supply in Ecuador was lacking for several months. The clinic was running 24 hours a day at that time because we did surgery. The generator of the clinic was so small, it broke down often. We searched for a service engineer to repair the generator, and finally he came at midnight. But, I could not find our clinic manager anywhere. I was perplexed. At that time, my



Spanish was not fluent enough to communicate. Eventually, a nurse helped me explain everything. The next day, when I talked with the clinic manager about this, he did not understand. I was so upset that I scolded him in Korean. He said to me, "Sister! I don't know what you are saying. You came here as a missionary for us. I wish you could learn Spanish quickly so that we can communicate with each other." His words struck me and I realized my identity as a missionary. "You came here as a missionary for us!" These words included all the things that I have to be aware of. Whenever I face challenges and frustrations, I remind myself of his words. And I begin another new day! Like the words of Mother Seton...

